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창세기 6 주사 (3:1~6)

(2016년 1월 24일 - 2016년 1월 30일)

(제4권 6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4 권-제 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1 월 2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뱀...도대체 너는 누구냐? [1]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1~5)

(1 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교활했습니다.

(וְהַנָּחַשׁ הָיָה עָרוֹם מִכָּל חַיַּת הַשָּׂדֶה אֲשֶׁר עָשָׂה יְהוָה אֱלֹהִים)

그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הָאִשָּׁ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אָף כִּי-אָמַר אֱלֹהִים לֹא תֹאכְלוּ מִכָּל עֵץ הָגֶן?)

(2 절)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הָאִשָּׁה אֶל-הַנָּחַשׁ)

이 동산의 나무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מִפְּרֵי עֵץ-הָגֶן נֹאכָל.)

(3 절)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וּמִפְּרֵי הָעֵץ אֲשֶׁר בְּתוֹךְ-הָגֶן אָמַר אֱלֹהִים)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לֹא תֹאכְלוּ מִמֶּנּוּ וְלֹא תִגְעוּ בּוֹ),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כִּי-תִמְתּוֹךְ.)

(4 절)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הַנָּחַשׁ אֶל-הָאִשָּׁ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לֹא-מוֹת תָּמָתוֹךְ.)

(5 절)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כִּי יָדַע אֱלֹהִים כִּי)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כִּיּוֹם אֲכַלְכֶם מִמֶּנּוּ וַנִּפְקְחוּ עֵינֵיכֶם),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וְהָיִיתֶם כְּאֱלֹהִים יָדְעֵי טוֹב וָרָע.)

묵상을 위한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끝났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창조는 하나님과 피조물 모두에게 축제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을 만든 거였다. 아파르(먼지)를 모아 형상을 만든 다음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태백이 그토록 예찬한 ‘별천지’가 에덴에 비견될 수 있을까?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아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곳이 에덴이다 (사 11:6-7 참조). 각종 실과들이 넘쳐나고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에덴에 아담을 데려다 놓았다. 게다가 여자는 아예 에덴에서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받은 만물의 영광인 인간은 잠깐 동안 행복의 극치를 맛보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성경 이야기는 이제 급반전된다. 뱀의 등장은 독자를 긴장하게 만든다. 아마도 뱀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게다. 뱀은 웬지 기분 나쁘다. 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다. 사실 여기서 독자들에게 이미 ‘악’으로 낙인찍힌 뱀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뱀을 무조건 기분 나쁜 사악한 동물, 심지어 사탄의 화신으로 몰아붙여선 곤란하다. 특히나 창세기 3 장에 등장하는 뱀을 성급하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몰아가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사건을 처음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나라 무속에 관해 재미있는 글을 쓰는 조성제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한겨레 신문 휴심정이라는 섹션에 뱀에 관해 재미있는 글을 올렸다.

“뱀과 가장 관련이 있는 민족은 바로 우리 동이족(東夷族)일 것이다. 박제상의 <부도지>를 보면 마고(麻姑)와 두 딸 궁희(穹姬)와 소희(巢姬)가 나온다. 우리 민족을 궁희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궁穹’자를 파자하면 ‘구멍혈穴’과 ‘활궁弓’자로 ‘혈穴’은 동굴을, ‘궁弓’자는 뱀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궁穹’은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뱀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궁弓’을 활로 나타낸 것은 뱀은 적을 만나면 웅크린 몸을 쭉 펴서 날아오르듯 공격을 하기 때문인데, 이 모습이 바로 활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활궁弓’자를 뱀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상가(喪家)집을 표시하는 ‘조弔’자는 뱀이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뱀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일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웅크리고 있는 뱀 ‘弓’이 일자 ‘丨’가 된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성제씨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뿌리에 뱀이 함께 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용맹의 상징으로 여기는 활도 뱀과 관련이 있다. 더군다나 죽음을 알리는 데에도 뱀의 형상을 이용해 왔다. 이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뱀을 단지 사악한 동물로 여기지만은 않았음이 분명하다.

고대 근동 지방의 벽화 등 예술 작품에서도 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데스몬드 알렉산더와 데이빗 베커는 그들이 공동 편집한 구약사전 모세오경 편 (Dictionary of Old Testament: Pentateuch)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아마도 뱀의 독이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의 눈꺼풀 없는 눈은 수수께끼같이 불가사의한 이미지를 준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뱀들은 죽음과 지혜, 둘 다와 관계가 있다.”

당시 수메리안의 신들 중에 ‘닝기쉬지다’ (Ningishzida)라 이름하는 신이 있었다. 그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흥미롭다. ‘변함없이 풍요를 주는 나무의 신’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수메리안들은 그를 지하세계의 통치자이자 땅의 왕권을 가진 자로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백년 이상을 보낸 고대 이집트에서도 뱀은 지혜롭고 매력적인 동물로 여겨졌다. 당시 이집트의 와젯 (Wadjet) 부족의 족장은 뱀 문양의 관을 머리에 썼을 정도다. 고대 역사를 토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이 뱀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도 지레 사악한 동물이라고 속단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됐다.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면서도 해석이 어려운 동물이라는 말이다. 앞으로 몇 번은 뱀이야기를 해야 할 듯하다. 지겹더라도 이번 기회에 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문에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뱀...도대체 너는 누구냐? [2]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5)

묵상을 위한 이야기

뱀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물의 이름이다. 양이 그 다음이다. 양은 가인에 의해 죽임 당한 아벨의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한다.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뱀보다는 양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런데 뱀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뱀이 양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다. 먼저 나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실 뱀이 있어야 양이 그 가치를 받는다. 뱀이 없으면 양도 의미가 없다. 뱀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스’(נָחָשׁ)다. 나하스는 눈(נ), 헛(ח), 쇠(ש) 세 자음이 합쳐진 단어다. 이 세 단어가 뱀의 어근이다. 사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 모음이 없다는 말은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수 없다는 말이다.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거기에 모음을 덧붙였다. 지금의 모음 체계로 구성된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11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못했다는 말이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글자의 형태를 보고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리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창세기에서 ‘눈헛쇠’(נָחָשׁ)은 단지 뱀이라는 동물로만 이해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의미로도 쓰였다. ‘남을 속이는데 능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을 종처럼 일해야 했다. 마침내 약속한 기한이 되자 야곱은 라반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라반이 드디어 야곱의 품삯을 정한다. 걸으려는 야곱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야곱을 더 붙잡아 두려는 속셈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창 30:27).

라반의 말을 직역하면 “만약 내가 네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니헛쉬티’(נִחְשִׁיתִי)이고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눈헛쇠’(נָחָשׁ)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말이다. 라반은 야곱이 복덩이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 단어를 언급한 사람이 창세기에 또 한 명 있다. 바로 요셉이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두 번째 애굽을 찾은 형제들과 만찬을 끝낸 요셉이 베냐민의 곡물 주머니에 은잔을 넣었다. 그리고 그의 청지기들에게 그들을 잡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꺾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창 44:4-5).

여기에서는 점을 친다는 단어로 ‘눈헛션’(שֵׁטָן)을 두 번 연속 사용했다. 여기서는 ‘신의 능력을 힘입어 미래의 운을 알아 본다’의 의미로 쓰였다. 단순히 점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실제로 요셉은 다른 점쟁이들이나 술사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다. 요셉의 입으로 직접 ‘눈헛션’(שֵׁטָן)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단어가 단지 사주팔자를 짚거나 운을 점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

라반과 요셉 모두 ‘눈헛션’(שֵׁטָן)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 보면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쓰였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뜻으로 ‘눈헛션’(שֵׁטָן)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단어가 뱀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다는 것과 고대 근동 지방에서 뱀을 신으로 숭상했다는 기록을 보면 뱀이라는 단어 ‘나하스’(נָחָשׁ)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창세기 3장 1 절로 돌아가 보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3장 1 절 상반절) 뱀에 관한 첫 기록이다. 창세기 저자에 따르면 뱀은 간교했다. 여기서 ‘간교’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아룸’(אָרָם)은 ‘상황 판단이 빠름,’ ‘술수가 뛰어난,’이라는 의미다. 우리 말 ‘간교’의 사전적 의미는 ‘간사하고 교활하다’이다. 간사란 말과 교활이란 말은 모두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다. 참고로 ‘간교’(奸巧)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했는데 ‘교묘하게 남을 속인다’는 의미다. 여하튼 아쉽게도 우리 말에는 히브리어 단어 ‘아룸’(אָרָם)을 번역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다.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말에는 이미 그 속에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단어에 이미 내포돼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과연 히브리어 ‘아룸’(אָרָם)이 간교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일까? 먼저, ‘나하스’라는 이름은 아담이 불인 이름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하스를 창조하셨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룸’(אָרָם)을 중립적 의미로 사용했다. 구약학자 케네스 메튜스는 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록 뱀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기인하지만, 악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오직 인간의 죄와 죄의 책임에 대한 기원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에 따르면 뱀은 악의 기원도, 죄의 기원도 아니다. 뱀이 그 자체로 악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셈이 돼 버린다. 뱀은 처음부터 선한 존재이며 지금 여자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다. 게다가 지금은 아직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다. 그 무엇도 선악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뱀을 사악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 선악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모든 선악 판단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창조당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좋다’고 판단하셨다. 물론 뱀도 그 중 하나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창세기에 등장한 뱀이 선하다는 것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뱀...도대체 너는 누구냐? [3]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5)

묵상을 위한 이야기

기왕 시작했으니 뱀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보자. 뱀은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교활함(적절한 단어가 없으므로 한글 번역 그대로 사용함을 이해하기 바란다.) 때문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꼭 잡아서 그와 그 후손을 저주한 적이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끝나자마자 왜 하필이면 뱀이 등장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뱀이 뭘길래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괴력을 지녔단 말인가? 우리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질문에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뱀과 관련된 모세오경의 몇몇 기록들을 통해 뱀에 관해 좀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뱀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결자해지라고나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뱀으로 문제를 야기했으니 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창세기 49 장에서 뱀 ‘나하스’(נָחָשׁ)의 어근인 ‘눈헛션’(נָחַם)은 두 번째로 야곱의 입에서 직접 언급된다. 단의 앞날을 예언하는 장면에서다. 단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다. 야곱이 첫 부인 레아로부터 네 명을 아들을 얻었다.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을 동안 단 한 명의 아들도 갖지 못한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라도 그 억울함을 풀고자 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이다. 단은 ‘억울함을 풀다’라는 의미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지었을까?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차례대로 축복을 했다. 그 중 단을 향해 예언하는 중에 뱀, 독사라는 말을 언급했다.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선뜻 분간이 가질 않는다. 야곱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셋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창 49:16-18).

케네스 매튜스 박사는 이 예언의 시구를 한 마디로 ‘적으로부터의 구원’으로 해석했다. ‘심판하리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디인’(דִּין)은 단(דָּן)과 그 어근이 같다. 이 말은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는 다스린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그래서 케네스 박사는 이 16 절을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행위로 보았다. 물론 18 절에 나오는 그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과 구원 사이에 들어 있는 단어가 뱀과 독사다. 이 둘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한다. 단의 용맹과 지혜로움을 뱀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단 지파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 유명한 삼손이 단 지파였고 그의 삶은 매우 역설적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삼손 한 사람이 단 지파 전체의 운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야곱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뱀이 ‘구원’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는 점이다.

그다음으로 뱀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출애굽기에 나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 준 첫 번째 기적에서 뱀이 또 다시 등장한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에게 노예의 삶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을 명한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내셨음을 믿도록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하셨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왜 하필 뱀일까? 지팡이가 뱀처럼 길게 생겨서 뱀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마테스’ (מָטֵס) 즉, 지팡이는 ‘홀’을 의미하고 홀은 왕권, 힘, 인도자를 상징한다. 따라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지팡이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모세는 단 한번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므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친 일 때문이다 (민 20:11).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화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친 것이 졸지에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꼴이 되었다. 반석의 물은 당연히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백성들 눈에는 지팡이를 휘두른 모세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온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권력으로 변질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사건 이후에 뱀은 심판자이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또 다시 등장한다. 출애굽 후에 수십 년째 광야를 전전하며 헤매던 백성들 사이에 여기저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자 분노가 폭발했다. 수십 년을 돌고돌았는데 또 다시 제자리니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는가?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나운 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했다.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었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뱀독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아주 의외였다. 뱀으로 사나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쳐다 보는 사람들은 살 거라고 했다. 모세는 명령대로 뱀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 올렸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 보자 뱀독은 씻은 듯 사라졌다.

훗날 예수님은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장대 높이 달린 뱀뱀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의 예표라고 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백성들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뱀은 도대체 무엇인가?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도구니 필경 ‘악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신약에 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다 확실해진다. 뱀은 율법을 상징한다.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도 바울은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다 (고전 15:56). 율법은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반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죽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 서로 다른 두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뱀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 가장 교활한 짐승 뱀을 보았다. 그 뱀에 의해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으로 인도되어 그 열매를 따먹는다. 그들이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들은 율법 아래 갇히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뱀이다. 하지만 뱀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며 그럴 힘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이 되신 것이다. 장대 높이 달린 그 뱀 말이다. 그러니 뱀을 사탄이니 뭐니 해서 무조건 악으로 몰아가거나 터부시할 것이 아니다. 사탄이 악이라면 사탄을 죽여 없애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은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 되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단의 열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5)

묵상을 위한 이야기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여기서도 ‘바이요메르’(בַּיּוֹמֶר)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하나님에게 ‘바이요메르’는 창조를 의미했다. 아담에게 ‘바이요메르’는 감탄이요 연합의 표시다. 뱀에게 ‘바이요메르’는 질문이요 의문의 시작이다. 뱀은 질문 하나만으로 여자를 헛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3:1).

이 질문에 뱀의 의도가 들어 있다. 이 질문에서 ‘정말’이라는 단어와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정말 그렇게 말했어?’라는 질문은 ‘너는 그것을 확신하느냐?’라는 뜻이 담겨있다. 뱀은 그 말의 사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방식의 질문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 아무리 명백한 진리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모한 힘이 있다. ‘정말?’이라는 말이 여자의 컷가를 올리는 순간 여자는 100% 확신을 갖고 답해야 한다. 게다가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단의 열매로 전제하여 질문한다. 이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와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답할 책임은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동산의 나무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3:2).

그녀의 대답은 온통 오류투성이다. 정확하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개입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삭했기 때문이다. 여자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2:16~17).

여자는 중요한 몇 개의 단어를 왜곡했다.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로 바꾸었다. 알다시피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으며 생명 나무의 열매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죽을 것이다’라고 바꾸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의 히브리어 표현은 ‘무트 타무트’(מוֹת תָּמוּת)다. 죽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여자는 그냥 ‘트무튼’(תָּמוּת)이라 했다. 죽는다고는 했지만 강조하지는 않았다. 한글 성경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번역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트무튼은 강조만 안 했을 뿐 죽는다고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죽는다’를 그냥 ‘죽는다’로 말함으로써 강력한 경고의 말이 단지 예언 수준으로 바뀐 것이다. 그뿐 아니다. ‘먹는 날에는’이

라고 하나님이 죽음이 임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그것을 조건으로 바꾸었다. 죽음은 먹는 즉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지만 여자의 말에는 죽음이 임하는 조건만 있을 뿐 정확한 시기는 없다. 마지막으로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만지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나가기’(נָסַח)다. ‘선을 넘다’ ‘범하다’라는 의미다. 경계를 넘어서면 죄가 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이미 율법을 내포하고 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있다. 바로 출애굽기 19 장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내리실 때 시내산은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출 19:12).

여기서 ‘침범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나가기’(נָסַח)다. 이 단어는 특히 레위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접촉하다’라는 뜻이다.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 반대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여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일종의 하나님의 성역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 성역을 넘어 침범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대답에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직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여자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다 해서 선부른 책망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에게는 아직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물론 뱀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에덴에는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자의 대답에 뱀이 응수한다. 뱀의 교활성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뱀은 이제 한술 더 떠 자신의 생각을 매우 확고한 어조로 말한다. ‘로 무트 트무튼’(לֹא מוֹת תָּמוּתֶיךָ),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란 의미다.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된다. 도대체 ‘무트’(מוֹת) 즉, 죽음이 무엇이길래 뱀은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한 답으로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이 뱀의 눈에는 여전히 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해 본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열매인 것처럼 말이다. 동일한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9 장에는 날때부터 장님된 한 청년이 등장한다. 당시 제자들은 그 청년에게 죄가 있어 그런 운명이 되었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라 하셨다. 인간이 보기에 그 청년은 매우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 주시기에 더할 나위없이 적합한 사람이다. 죽음이 그렇다. 어떤 이에게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여 항상 선하게 살려고 애 쓰고 거룩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죽음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장님이라 하고, 장님은 눈을 뜨게 하셨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고 자하는 그것이 죽음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죽음은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애씀의 총칭이다. 은혜를 떠난 것이 죽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처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5)

묵상을 위한 이야기

뱀은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뱀의 말은 치명적으로 유혹적이다. 듣는 이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이다. 그냥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면 될 것을 ‘하나님처럼’이란 단어를 슬쩍 끼워 넣었다. 인간은 이미 피조물의 정점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창조 과정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달랐다. 일방적 명령이 아닌 합의로 창조되었다. 인간에게 스스로 존재하라고 명하지도 않았고, 땅에게 인간을 내어 놓으라고 하시지도 않았다. 또한 식물과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종류대로 생겨났지만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한 개체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인간들에게는 에덴에 특별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에덴에 있던 그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조성하신 동산이었다. 인간들은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세상 만물을 통치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인간들은 단번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 그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유일한 나무였다. 인간들은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존재함을 알았다. 하지만 경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곧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지는 여자도 남자도 몰랐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처럼’이라는 달콤한 말을 했다.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증거가 바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이라 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닌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로지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말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단다. 아니 인간이라면 당연히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런 선악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인가?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 솔직히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마구 쏟아진다.

뱀의 말은 듣기에 따라 참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번도 악에 관해 설명하신 적이 없다. 악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 눈에서는 선이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후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토부’(טוב)다. 좋음, 즉 선이었다. ‘악’(רע, 라아)은 없었다. 인간이 만약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선을 선으로 판단하고 악을

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판단하신 것을 인간은 악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선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가 그 좋은 예다.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시몬은 짐승의 날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읍바 해변가에 있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그 항구다. 정오쯤 되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점심 때라 그런지 그는 배가 고파왔다.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때 베드로는 이상한 체험을 한다. 하늘이 열리며 그릇 같은 게 내려왔다. 그것은 마치 큰 보자기 같았고 네 귀퉁이를 매어 땅으로 내려왔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황홀경에 빠져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먹겠는가? 그는 대답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났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보내 준 그 환상은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 이방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사건이 된다. 그리고 곧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다. 그는 로마군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셨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 더 이상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분은 없어졌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자신만의 선악 기준, 거룩함과 속됨의 기준, 좋고 나쁨의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가 온전히 자신만의 선악 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는 뿌리깊은 스스로의 선악 기준 때문에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마침 그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동시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다. 당시 야고보를 위시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책잡힐까 두려워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 그로 인해 함께한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절친이었던 바나바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 내부에 있는 선악 기준은 이처럼 벗어 버리기 힘든 뿌리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갈 2:17-18).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내려진 율법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율법은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고 만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다 지켜서 인간을 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율법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분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 즉, 선과 악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 구분하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고자 하셨다. 하지만 인간들은 한 번 가져 온 그 선악 판단기준을 좀처럼

내려 놓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매력적인 것을 누가 선뜻 내려 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들이 하는 선악 판단은 마치 소꿉장난 같은 일종의 ‘하나님 놀이’에 불과하다. 인간이 판단하는 선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도 선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인간이 판단한 악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이 아닐 수도 있다. 베드로만 하더라도 옥상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선악 기준이 틀린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인간이 왜곡한 유대주의에 따른 선악 기준이다. 그 기준은 인간이 보기에 멋지고 아름답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정죄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했다. 인간의 조상인 남자와 여자가 되고자 했던 ‘하나님처럼’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선악 판단은 애초부터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처럼’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다. 그래서 덥석 물게 된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참한 고통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떠밀려 고난의 풀무불에 몇 번이고 들락날락거린다. 그 결과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른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선악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악 기준이 하나님의 선악 기준과 충돌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삼중세트 (?)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6)

(6 절)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그녀 눈에 즐겁고, 또한 그 나무가 똑똑하게 할 만큼 탐나는 것을 보았고, (וַתֵּרָא הָאִשָּׁה כִּי טוֹב הָעֵץ לְמֵאֲכָל וְכִי תְאוּהֶהּ הוּא לְעֵינֶיהָ וְנִחְמַד הָעֵץ לְהַשְׁכִּי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וַתִּקַּח מִפְּרִי הָאֵלֶּה וַתֹּאכַל) 그리고 그녀는 그녀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었고, (וַתִּתֵּן מִן הָאֵשֶׁת עִמָּה) 그도 먹었습니다. (וַיֹּאכַ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5-16).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 본 것에 빗대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다. 하지만 이브가 이 나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그런 욕망이 죄의 뿌리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지금 이브 안에 이미 그 죄의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죄의 근원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다가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의 속성으로 자리잡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브가 그 나무를 탐스러운 눈으로 바라 본 것은 잘못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이브가 에덴에 존재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땅에 식물들을 존재하게 했다. 창조 기록으로는 셋째 날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이 식물들을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주셨다. 창세기 2장 9절은 그 나무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탐나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그 땅에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브가 나무를 탐스럽게 바라 본 것은 욕망의 발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런 행동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일은 늘 있어 왔다. 인간이 원래 선한데 악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인가? 만약 인간들이 선하게 태어났다면 그 선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이론들이 각각의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론을 속 시원히 규명하지 못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라고 주장했고,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맹자는 인간들의 마음은 그 바탕이 선하며 그 바탕에서 네 가지 선한 것이 나온다고 했다. 소위 사단(四端)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인간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있는데 이를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 한다. 둘째,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옳지 못함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 한다. 셋째, 인간에게는 겸손하고 남에게 자신의 권리나 자리를 양보하는 본바탕이 있는데 이를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잘잘못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 네 가지가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선한 본바탕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양심’(良心)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양심도 없다’라는 말은 사람의 사악함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자 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양심의 문자적 의미는 ‘어진 마음’이다. 따라서 맹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미 인간의 마음은 충분히 선하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선했을까? 아니면 악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겐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었다. 선악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서 악의 근원이 될만한 단서나 선악과를 먹게 된 계기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그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인해 뱀은 최초의 악의 근원으로 낙인찍혔다. 물론 그다음은 여자였다. 여자에 관해선 창세기 3장 6절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우리 개역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얼핏 보면 판단의 주체는 여자인 것처럼 보인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선악과 열매 자체가 객관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자의 판단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가 이미 그렇게 창조된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게 해석된다. 그녀는 나무를 보았다. ‘먹기에 좋고 눈에 즐겁고 푹푹하게 할 만큼 탐나는’이란 구절은 나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여자가 나무를 주관적으로 그렇게 본 것이 아니다. 그 나무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먹지말라고 경고했고, 더 나아가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했었지만 사실 여자에게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는 생각도,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선불리 여자만 탓하거나 또는 아담 때문에 후손인 우리들까지 힘들게 됐다고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일이 이렇게 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아담과 이브는 선했을까 아니면 악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보기에 선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율법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먹고 난 이후 그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뱀이 말했던 ‘하나님처럼’의 세상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처럼’의 세상이라는 데에 동의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혹시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처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유意志의 발로인가?(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6)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담과 이브가 먹은 열매는 선악과다. 이로써 아담과 이브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고 이를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창 3:22 참조). 하나님은 아담이나 이브에게 죽는다고만 하셨지 이렇게 되리라고는 경고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일까? 아니면 인간들이 선악을 알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일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정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가신다는 가정이다. 사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다. 적어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 가정은 진리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를 자신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천사든 인간이든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생각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 오는 것을 막는 일이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셔야만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막으시기는 커녕 허용하셨다. 아니, 허용하셨다고 보다는 부추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정도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인간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는 그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것부터가 그렇다.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말이다. 가장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단지 경고용일 뿐이라는게 말이 되는가? 만약 그 열매가 결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에덴에 두셨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던 신학자들은 끝내 ‘자유意志’(free will)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자유意志라는 단어는 인간의 결정이 외부의 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 이 단어는 사도 바울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다. 이 단어는 바울이 죽은 후 거의 300년이 지난 시점에 네메시우스(Nemesius)라는 에메사(지금의 시리아) 교부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그의 저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On Human Nature)]에서 인간에게 자유意志가 있음을 최초로 인정한다. 그 이후부터 이 단어는 신학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골칫거리 난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세상에 만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단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일까? 이런 모든 질문에 자유意志라는 말은 좋은 해결책이 된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자유意志론]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意志를 준 것은 그것으로 죄를 지으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함’이라 하였다. 자유意志가 없이는 인간은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어거스틴의 이 주장만으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었는지

자유 의지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설령 이 말대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고 치자. 적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할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라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자유 의지만큼은 막으셨어야 하지 않을까?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계속해 보자. 한 편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 리라는 것이 있다. 또 한편에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 그 둘이 충돌한다면 누가 이길까? 창세기 의 기록만 보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서는 인간의 의 지가 하나님을 이기도록 방치해 두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하나님은 가 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방치하셨다. 인간의 죄가 관영하도록 내버려두어 결국 대홍수를 통해 단 여 똌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를 죽이셨다. 바벨탑을 만드는 것도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날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가?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악이 만연하도록 방치하셨다. 그 악의 소굴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제 발로 들어가는 것도 막 지 않으시다가 부랴부랴 천사를 급파하시기도 했다. 그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죽고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천하에 몹쓸 일이 일어나는 데도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 야곱의 넷째 아 들인 유다가 며느리와 불륜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도 눈감아 주셨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유다의 아 들들인 엘과 오난이 여호와와 함께 행했다고 가차없이 죽이신 분이 며느리와 동침하여 쌍둥이 를 낳은 유다는 살려 두셨다. 그런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중 가장 좋은 축복시를 들려 주는 것도 허락하셨다.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다. 다윗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 그 전쟁은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었는데 말이다(삼하 11:1 참조). 하나님은 다윗의 자유 의지를 꺾고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굳이 자유 의지를 꺾지 않더라도 밧세바의 목 욕 시간과 다윗이 옥상에 나가는 시간만이라도 달리 설정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 다.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하필 그 시간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었고 때마침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다. 어찌면 타이밍이 그리도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거기까지도 백 번 양보할 수 있다. 그러면 다윗이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는 것은 막을 수 없으셨나? 아니면 우리아를 죽이는 것만이라도 막아 주실 수 없었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셨다. 결국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야나단을 보내어 그의 행위를 책망하신다. 뒷북도 어느 정도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전에 개입하여 인간이 하려는 일을 막으신 경우도 있다. 아브라함이 아내 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넘겼을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으셨다. 그 것도 두번씩이나 말이다(창 12 장, 20 장).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집트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 은 그야말로 경을 쳤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집트왕 바로는 어떤가? 모세의 경고와 눈 앞의 재앙들로 한시 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셔서 결 국 열 번의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게 하셨다(출 9:12, 10:1, 10:20, 10:27, 11:10 참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낸 후 바로는 그들을 쫓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결국 이스라 엘 백성들의 뒤를 쫓게 만드셨다(출 14:4 참조).

이처럼 어떤 때는 인간의 의지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셨다가 인간들에게 냉혹하게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시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인간의 마음을 마치 로봇처럼 다루시기도 한다. 결국 인간의 자유 의지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이 자유 의지지만 하나님의 목인 없이는 인간들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인하시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분명 ‘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에서는 과연 악으로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것은 인간의 도덕적 잣대로 보면 더럽고 추한 악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속자를 보내는 일종의 의도된 장치였다. 유다의 아비 야곱이 20여년을 사기꾼으로 살게 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명명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들은 자유 의지를 인간이 옳다고 보는 도덕과 연관지어 이해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류 구속에 초점을 맞추어 행사하신다. 인간의 도덕관과 하나님의 선악관에는 이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항상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엔 모든 것이 선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인간들끼리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것을 자유 의지라 한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들은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스스로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최종 판결을 이미 내리셨다.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닌 ‘은혜’다. 하나님의 선악 판단은 십자가 상에서 이미 끝났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지셨다.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더더욱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악 판단과 무관하게 인간들은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으로 계속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를 쌓기 위해서도 아니다. 선을 향해 의지를 발동하는 일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들이 올바른 삶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 의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를 기왕이면 좀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자유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 아들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자유 의지로 선을 선택하는 것과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반대로 구원받은 후부터는 당신은 늘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악 판단과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